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3. 2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英, 증오범죄 급증에 극단주의 제재 착수

- 3.14 언론은 영국 정부가 이스라엘-하마스 전쟁 이후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'극단주의'의 정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, 극단주의 단체나 개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 자문 기구 참여 및 정부 자금지원 차단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보도

미주

○ 美 국토안보부*, 범죄퇴치·국가안보 관련 AI 활용

- 3.18 언론은 美 국토안보부가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自國內 마약 밀매 등과 같은 주요 범죄 퇴치와 국가 기반 시설 보호 및 정보분석 등 안보와 관련한 업무에 접목할 예정이라고 보도

* '01년 9·11테러 이후 미국 행정부 내 각 부처에 분산된 대테러 기능을 통합할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현재 직원만 26만명인 대규모 부처

○ 美, 뉴욕에서 폭탄테러 계획한 헤즈볼라 소속 테러범 검거

- 3.17 외신은 美 텍사스 국경수비대가 테러단체 헤즈볼라 소속 레바논 이민자 「바셀 에바디(22세)」를 체포하였으며, 同人이 뉴욕으로 이동하여 폭탄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보도

중동

○ 하마스,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새 휴전안 제시

- 3.15 언론은 하마스가 영구 휴전과 이스라엘軍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던 입장을 철회하고, 이스라엘軍의 가자지구 철수 기한을 정한 뒤 영구 휴전을 위한 날짜를 합의하기로 하는 휴전안을 제시했다고 보도

- **이스라엘, 가자지구 최대 병원에서 하마스 무장대원 20명 사살**
 - 3.19 이스라엘軍은 알시파 병원 급습 中 하마스 무장대원 20명을 사살하고 병원 內에서 무기와 현금을 발견한 영상을 공개,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同 공격을 하마스 격퇴를 위한 또 하나의 단계라며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
 - ※ 하마스는 同 작전을 국제법 위반으로 비판, WHO 사무총장도 병원은 전쟁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

아 · 태평양

- **홍콩 議會, 홍콩판 국가보안法 만장일치 통과**
 - 3.19 외신은 홍콩 의회가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'수호국가안전조례'를 통과시켰으며, 同法은 국가 분열과 전복, 테러활동,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同法 통과에 따라 홍콩 內 反체제 활동에 대한 탄압은 한층 더 가혹해지고 홍콩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것이라는 우려 제기

아프리카

- **나이지리아, 카두나州 부다 마을에서 주민 61명 피랍**
 - 3.13 언론은 나이지리아 북부 카두나州 카주루지역 부다 마을에서 무장세력이 여성 32명과 남성 29명 등 주민 61명을 납치했으며, 이달에만 네 번째 대규모 납치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도
 - ※ 3.6 보노州 여성·어린이 200명, 3.7 카두나州 어린이 287명, 3.9 소코토州 어린이 15명 납치 등 현지 군·경이 수색 중이나 현재까지 구출 소식은 全無
- **니제르, EU·美軍 철수 요구로 테러단체 확산 우려**
 - 3.17 언론은 니제르 군부가 지난해 7월 유럽연합과 안보 협약 종료 이후 미국과의 군사협력 또한 중단하면서, 同 지역을 급진 무장세력 격퇴 거점*으로 활용한 美 안보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도
 - * 니제르는 서아프리카 사헬지역에서 美軍 작전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, 아가데즈市에서 주요 공군기지를 운용하여 정찰비행 및 기타작전을 수행

옴진리교,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사건

- '95.03.20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종교단체 옴진리교(Aum Shinrikyo) 교인 10여명이 열차에 사린가스를 살포하여 14명이 사망하고 6,000명 이상이 중·경상을 입은 사건
 - 옴진리교는 '89년 시각장애인이던 「아사하라 쇼코」가 창설한 신흥 종교로, 同테러 사건 이전에도 변호사 일가족 살해사건, 카메이도 약취사건(탄저균 살포미수) 등 반사회적 강력 범죄를 저질렀으며
 -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의 수사력 및 관심을 분산하여 옴진리교가 조사받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테러계획
 - ※ 사린가스 생산을 위해 대규모 자본을 투입, 화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생산
 - 사건 이후 일본 최초 종교단체 해산 명령으로 옴진리교는 해산되었고
 - 교주 아사하라는 사건 직후 도주하였으나 5월에 체포되어 기소, '96년 공판을 시작으로 '06년 사형 확정 후 '18년 사형집행
 - 관련자 188명도 기소되어 13명 사형, 5명 무기징역, 80명 실형 선고
- ⇒ '24년은 4월 국회의원 선거, 7월 파리 올림픽 등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가 여럿 예정된 만큼,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테러 예방을 위해 대테러 관계기관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사린(sarin) 가스 >

- (제조) '38년 독일의 화학자인 「게르하르트 슈라더」에 의해 최초로 합성
- (독성) 독성은 청산가리의 500배 수준이며 무색·무취로 피부, 호흡으로 흡수되어 마비, 구토, 경련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호흡근육 마비로 질식사
- (처치) 옷을 벗기고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에 눈 및 피부를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, 해독제(아트로핀, 프랄리독심) 투여
- (사용사례)
 - '80년 이란-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군이 무기로 사용
 - '95년 옴진리교가 사린가스를 이용하여 도쿄 지하철 독가스 테러
 - 소련-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아프가니스탄 민가에 사용